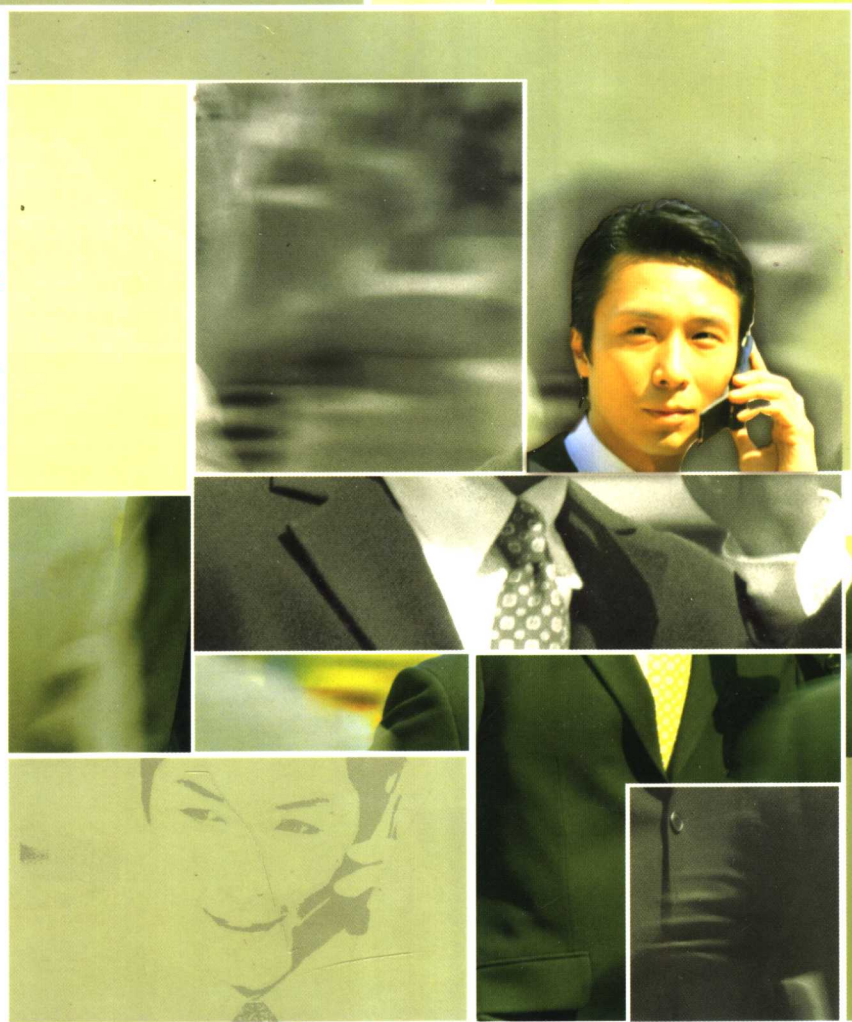


上海外国语大学教材出版基金项目



당대 한국 경제 当代韩国经济

李春虎 张世和 编著

WJ
外教社

上海外语教育出版社

H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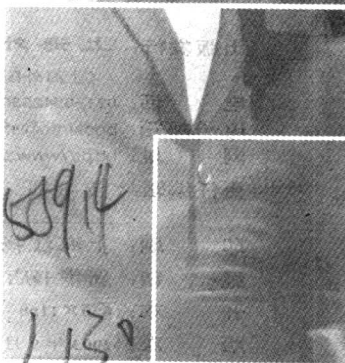
L130

上海外国语大学

目

당대 한국 경제 当代韩国经济

李春虎 张世和 编著



0A094/06

H59.4

L130

WJ
外教社

上海外语教育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当代韩国经济/李春虎, 张世和编著.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3

ISBN 7-81080-884-2

I. 当… II. ①李… ②张… III. 朝鲜语—语言读物, 经济
IV. H559.4: F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3)第051027号

出版发行: 上海外语教育出版社

(上海外国语大学内) 邮编: 200083

电 话: 021-65425300 (总机), 35051812 (发行部)

电子邮箱: bookinfo@sflep.com.cn

网 址: <http://www.sflep.com.cn> <http://www.sflep.com>

责任编辑: 支顺福

印 刷: 上海江扬印刷厂
经 销: 新华书店上海发行所
开 本: 850×1168 1/32 印张 11.75 字数 301 千字
版 次: 2003年9月第1版 2003年9月第1次印刷
印 数: 3 500 册

书 号: ISBN 7-81080-884-2 / F · 005

定 价: 16.00 元

本版图书如有印装质量问题, 可向本社调换

머 리 말

아시아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조선반도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려왔다. 대대손손 이 땅을 개척하면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여 주변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礼仪之國)’이라는 예찬을 받아왔다.

일찍이 1876년 개항이전 조선왕조 사회에는 이미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었다. 즉 화폐경제의 발달, 선대제도(先貸制度)의 출현, 공장제 수공업의 발생, 농민층 분화와 임금노동자의 출현, 실학사상(實學思想)의 대두 등 현상이 바로 자본주의 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왕조는 19세기 말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이며 도전이었던 개화에 실패하여 20세기 초에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가난하고 낙후된 약소민족으로 전락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2차세계대전이 종식될 무렵, 조선반도는 비록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해방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인위적인 분할로 국토분단의 새로운 진통을 겪어야 했고 그 연장으로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어 조선반도는 완전히 폐허로 되어 버렸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 한국에는 이미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참기 어려운 ‘굶주림의 시대’에서 풍요로운 사회제로의 전환을 한국에서는 불과 30년 미만에 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20세기 전반기는 일제식민지의 통치와 억압, 민족독립운동 및 광복을 맞은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예기치 못한 국토분단, 3년간의 내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부흥과 ‘한강기적’을 창조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저력, 노력과 성공을 세인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로는 198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24회 올림픽과 1993년 대전엑스포 그리고 1996년에 세계 ‘부국구락부(富国俱乐部)’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996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4800억 달러로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제11위를 차지하였고 일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만 548달러로 1963년에 비하여 105배나 증대되었으며 1996년 한국의 수출입총액은 280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제12위 무역대국으로 부상되었다. 또한 일본을 초월하여 세계 제1위 선박 및 DRAM칩 생산국이 되었고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 세계 제5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의 산업구조도 이미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었는바 1996년 현재 국민총생산 중 농림어업이 6.3%, 광업이 0.3%, 제조업이 25.8%, 건설·전기·가스·수도사업이 14.5%, 서비스 및 기타가 53.1%를 차지하여 전형적인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1955년에 농림어업이 43.9%, 제조업이 11.4%의 비중을 차지했던 전형적인 농업구조와 비교하면 오늘날 한국의 산업구조가 그동안 얼마나 급격히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20세기 말 그동안 발전 가운데서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및 국제 화폐 투기업자들의 공격으로 심각한 외환·금융위기를 불러 일으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유자를 받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

기 속에서도 새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이끌고 금융구조 개선과 개혁, 재벌기업과 기업구조 개편,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추진, 노동부문의 개혁, 사회공공부문의 개혁 등 5대 분야의 개혁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한 결과 2년 이후인 2000년 초에 경제위기와 IMF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대외적으로 조선에 대한 평화정책—햇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4강 외교를 다각적으로 진행한 결과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

황해바다를 사이 두고 오랜 우호 왕래 역사와 유사한 문화 기반을 가진 중국과 한국은 1992년 8월 24일에 드디어 수교하였다.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증진을 이룩하면서 국제화시대의 동반자로서 우호선린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수교 전인 1991년에 4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수교 이후 매년 30~40% 이상씩 급성장하여 1999년에는 22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중·한 양국은 각각 상대방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급증하여 한국의 총 해외투자 건수의 40%를 넘기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되었다. 1999년 말 현재 1790여 개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양국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인적 교류 면에서도 큰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1991년에 1만 5000명에 불과했던 한국인의 중국방문객 수가 1999년에는 80여 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중국인의 한국방문객 수도 같은 해에 31여 만 명을 넘어섰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양국정상을 비롯한 지도층의 상호방문과 문화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더욱이 2000년 6월 27

일, 중국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자유화함에 따라 인적교류가 한층 확대되어 양국 인민간의 이해의 폭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중·한 두 나라 경제, 문화 교류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한국학을 사랑하고 배우는 청년 학생들에게 적은 도움이나마 주고자 이 책을 출간하니 독자들의 많은 조언을 바라마지 않는다.

저 자

2001년 1월

차 례

머리말	I
제 1 장 대한제국의 식민지화 및 식민지경제	(1)
제 1 절 대한제국의 일본식민지화	(1)
제 2 절 식민지경제	(3)
제 3 절 식민지경제의 특징	(5)
제 2 장 8.15 광복 후 한국경제	(15)
제 1 절 미군정하의 한국경제	(15)
제 2 절 정부수립 후의 한국경제	(20)
제 3 절 전쟁기간의 한국경제	(24)
제 4 절 부흥기의 한국경제	(28)
제 3 장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	(33)
제 1 절 경제개발계획의 도입과 주요전략	(33)
제 2 절 수출중도형 공업화 기반 조성	(38)
제 3 절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44)
제 4 절 경제안정기반 구축과 신흥공업국 진입	(51)
제 4 장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58)
— 전환기의 한국경제	
제 1 절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	(58)
제 2 절 한국 경제발전 성과와 규모	(65)

제3절 한국경제 고속성장의 요인	(76)
제4절 한국 경제위기의 요인	(85)
제5장 한국의 산업	(103)
제1절 지식기반산업	(103)
제2절 철강산업	(138)
제3절 자동차산업	(156)
제4절 조선산업	(168)
제5절 석유화학산업	(175)
제6절 전자부품산업	(180)
제6장 한국의 무역·관세 정책	(189)
제1절 원조경제와 대행무역	(189)
제2절 경제복구와 소비재무역	(193)
제3절 수출 제1주의와 대외무역의 발전	(196)
제4절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208)
제5절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구조조정	(217)
제6절 수입개방화와 무역자유화	(222)
제7장 한국의 재정·금융	(233)
제1절 조세·재정정책	(233)
제2절 금융과 금융정책	(242)
제3절 금융시장 개방과 개혁	(249)
제4절 금융관계 법규 정비	(255)
제8장 한국의 과학기술	(261)
제1절 국가과학기술 행정체제	(261)
제2절 한국의 과학기술 시책	(266)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	(268)

제 9 장 한국의 사회복지	(281)
제 1 절 한국의 복지제도	(281)
제 2 절 한국의 사회보험 현황	(294)
 제 10 장 21 세기 한국 사회경제의 발전전략	(301)
제 1 절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특징	(302)
제 2 절 과도기의 한국경제	(308)
제 3 절 21 세기 한국의 사회경제발전 전략	(326)
 주요 참고문헌	(331)
 한중경제어휘 대조표	(333)

제 1 장 대한제국의 식민지화 및 식민지경제

제 1 절 대한제국의 일본식민지화 (1897.10~1910.8)

조선왕조(1392년 건국)는 건국초기부터 안으로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고 밖으로는 민족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시대에는 주자학의 발달과 더불어 유교적인 예의와 절제가 생활화되었으며, 전통문화의 집대성이 한층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료간의 대립과 함께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두 차례의 큰 전란을 겪게 되었다. 양란(兩亂) 이후 조선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대지주 및 도매상인의 대두, 실학의 발전, 사회계층의 변동, 그리고 천주교의 전래 등 일련의 움직임은 전통사회에 일대혁신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러한 혁신의 바람과 함께 세도정치의 횡포에 시달린 조선왕조는 계속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897년 10월 12일, 조선왕조는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정부는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포했다. 그러나 1904년 2월 8일, 중

국 여순(旅順)항구를 기습하여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국외중립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국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한편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의 체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 보호국화의 제1단계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1904년 5월 31일, 일본은 보호국화의 구체적 방안이 담긴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결정했다. 이 강령은 일본 군대의 본격적인 한국주둔, 한국외교와 재정에 대한 감독, 철도부설을 중심으로 한국교통기관과 한국통신기관을 장악, 농업·임업·광업·어업 등 각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척식(拓植)계획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1904년 8월 22일, 일본은 「시설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일본이 추천한 재정고문, 외교고문의 채용과 중요한 외교안건에 대한 협의를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이 협약은 대한제국이 보호국화의 제2단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5년 11월 17일,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일본헌병의 호위 아래 대한제국정부로 하여금 내각회의를 열게 하고 주권자인 황제가 내무대신 이지용(李址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現) 등 소위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자문을 받아 ‘보호조약’ 즉 한일협상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5개 조문으로 된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완전히 박탈하고 황제에게 내알(內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감(統監)을 두게 하는 것이 그 골자이지만, 실제상에는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일본의 통감에게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대한제국의 일본식민지화는 제3단계로 접어들었다.

1907년 7월 20일, 일본의 강요에 의해 고종이 퇴위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1910년 8월 22일,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통감 사내정의(寺內正毅) 사이에 8개 조항의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에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일본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는 동학농민혁명, 독립협회운동, 의병투쟁, 애국계몽운동 등 민족운동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제 2 절 식민지경제(1910.8~1945.8.15)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기 전, 대조선 식민지 통치정책은 일본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3기로 전개되었다. 제1기(1910~1919년)는 식민지 지배의 기반 구축기이며, 제2기(1920~1929년)는 식민지 농업의 개발기로서 산미증식정책(産米増殖政策)의 실행기이며 부차적으로 일본자본의 수출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제3기(1930~1945)는 중국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정책(兵站基地化政策)의 실행기이다.

1. 제 1 기의 통치정책

일제침략자들은 강제합병 후 식민지 지배의 기반구축작업으로 토지조사사업·교통·운수·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식민지 재정·금융체계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에 식량 및 원료 공급을 위한 원시산업육성에 주력하고 공업건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일제의 대조선 공업정책은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령으로 발표한 「조선회사령」에 집약되어 있다. 회사령에는 조선을 일본자본주의를 위한 원료생산지와 상품판매시장으로 육성한다는 의도가 담겨

져 있었는데 그 기본내용은 조선에서 회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1910년 12월에 「토지조사령」을 발포하고 예비과정을 거쳐 1918년에 이르기까지 8년 간의 긴 시간과 막대한 경비를 들여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농업을 일본인 지주를 정점으로 하는 반봉건적 지주제로 편성하였다.

2. 제 2기의 통치정책

1919년 3월 1일 반일 독립운동을 전환점으로 제2기 식민지통치는 무단정치가 철폐되고 기만적인 소위 문화정치가 표방된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계획이 강행되고 회사령과 관세제도가 개혁되었다.

1920년 4월에 조선총독부는 「조선회사령」을 철폐하고 더욱 많은 일본자본이 조선에 진출하여 기업을 세우도록 허락하였다. 같은 해 9월에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의 재벌들을 불러들여 산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본의 유치를 꾀하고 유치공장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령을 철폐한 제2기에 있어서도 식민지 산업정책의 중심과제는 식량 및 원료의 증산, 특히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이고 공업화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공업의 발달은 미미한 상태이며 근대적인 대규모 공업은 많이 건설되지 않았다.

1920년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내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 20세기에 진입한 후 일본은 항구적인 미곡 수입국으로 변하여 조선으로부터 매년 150만 톤의 미곡을 수입하였다.

3. 제 3 기의 통치정책

1930년대 일본자본주의의 경제공황과 대외침략전쟁은 대조선 식민지정책에 중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시기에 일제의 대조선 산업정책의 기본지침은 농공병진(農工並進)이었으나 실제로 정책의 중심은 공업이었다. 1931년에서 1944년에 이르기까지 농업생산액은 3.1배의 성장을 보였으나 공업생산액은 7.7 배로 성장했고 그 구성비도 같은 시기에 26.5%에서 47.6%로 증가했다.

1931년 중국 동북에 대한 무력침략을 감행한 이후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표한 일본제국주의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조선반도에 급속히 진출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약탈적 개발과 군수공업을 이식함으로써 사회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조성하였다. 1937년 중국에 전면적인 전쟁을 도발한 이후에는 전시경제체제하에 대륙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조선반도의 역할이 강조되어 산업구조의 군사적 개편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군수공업 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학공업·금속공업·광업 등 공업이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한편 1934년 곡물가격하락으로 인한 일본 국내 지주계급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산미증식계획이 재개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미는 주로 중국대륙침략군의 군량미 공급에 충당되었다. 1937년 중국대륙반출미가 4만 섬이던 것이 1939년에는 84만 3천 섬으로 늘어났다.

제 3 절 식민지경제의 특징

광복되기 전 조선식민지경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본독점자본이 공업생산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서 민족자본의 역량은 매우 취약하였다.

먼저 20세기 30년대 조선 공업의 발전과정에 전체 산업부문에서 민족자본과 일본계자본이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자. <표1-1>은 1938년 말 조선의 전체 기업회사에서 민족별 자본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주고 있다. 1938년 전체 기업 회사 5,413사 중 조선인 회사 수는 42%이고 일본인 회사 수는 58%이다. 그리고 불입자본금 10억 9,039만 3천 원 중 조선인 소유는 1억 2,206만 6천 원으로 11.2%이며 일본인소유는 9억 6,773만 3천 원으로 8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일본인 소유회사의 매 회사 당 평균 불입자본금은 30만 8,000원인데 비하여 조선인 매 회사 당 평균 불입자본금은 5만 3,800원으로 자본규모가 일본인 회사에 비하여 매우 열세하다. 조선인 소유회사의 자본이 전체 비율에서나 한 회사 당 평균 자본규모에서나 모두 열세에 놓여있었다.

<표 1-1> 조선 내 기업회사의 민족별 비교표(1939년)

	조선인 소유회사		일본인 소유회사		합 계
회 사 수	2,278 개	42.0%	3,135 개	58.0%	5,413 개
불입자본금	122,660 천원	11.2%	967,733 천원	88.8%	1,090,393 천원

자료: 조선식산은행 조사부, <식은조사월보>, 1940년 1월호, pp. 26-28.

다음 공업부문에서 조선인 자본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자. <표1-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40년 말 현재 공업분야에서 조선인공장의 공칭자본금은 전체의 6%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일본인 공장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인 자본의 압도적 우위는 민족자본의 형성 또는 축적이 상대적으로 쇠퇴되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러한 추세는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표 1-2> 민족별 공장의 공청자본금 (1940 년)
(단위:천원)

	조선인 공청자본	%	일본인 공청자본	%
금 속 공 업	6,100	2	373,000	98
기계 기구 공 업	61,500	42	85,050	58
화 학 공 업	1,000	0	276,250	100
가스 및 전기업	-	0	553,030	100
요 업	-	0	53,245	100
방 직 업	14,000	15	76,600	85
제지및목제품공업	5,500	10	47,000	90
식 료 품 공 업	5,250	7	73,800	93
인 쇄 제 본 업	1,500	43	2,000	57
기 타	7,000	8	83,500	92
계	101,850	6	1,623,475	94

자료: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일본독점자본은 조선 공업부문의 대부분 자본을 틀어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업생산의 기술역량도 틀어쥐고 있었다. <표 1-3>은 1944년의 업종별 조선인 기술인력상황이다. 당시 각 공업부문의 기술자 총수 8,476명 중 조선인기술자는 19%에 해당하는 1,632명에 불과하며 그중 금속·기계·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의 조선인기술자수는 13%로 매우 낮고 섬유·식품가공·목제품 가공·석유·인쇄업 등 경공업부문에는 29%이며 전기·수도·토목 등 기타 산업부문에는 22%이다. 이와 같이 공업부문 전체에 일본인 기술자는 81%에 달하고 조선인 기술자는 19%로 비율이 매우 낮다.